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

2013. 8.

교 육 부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

【 목 차 】

I. 대입제도 개선 배경	1
II. 대입제도 개선 방향	2
III. 대입전형 개선	3
1.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3
2.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8
3.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10
IV. 전형요소 개선	11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11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15
3. 학생과 교교를 배려하는 대학별 고사 운영	20
V. 모집시기 개선	21
VI. 대입전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23
1. 대입전형 운영지원 기구 구성 검토	23
2.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절차 간소화 ..	24
3.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도입	26
VII. 추진일정	27
<붙임1> 대입전형 개선 주요내용 비교	28
<붙임2> 2009 교육과정 총론(보통교과)	29
<붙임3> 시안 마련 경과	30
<붙임4> 영국의 원서접수기관(UCAS) 운영 현황	31

I. 대입제도 개선 배경

□ 대입전형에 대한 간소화와 예측가능성 요구 증대

-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 지속
-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확산

□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대입전형 필요

-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이해·개발하고 창의적·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의 양성과 발굴은 개인 행복과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
- 시험성적 중심의 학생 선발에 따른 단편적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여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과 학생 선발 절실

□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와 대학의 연계 강화 요구

- 대학 교육은 고교 졸업생 전체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입전형이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필요

* 급격한 고교 졸업생 수 감소로 머지않아 고교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 도래

- 이에 따라 고교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도 높은 대입전형 요구

□ 교육 양극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완화 필요

-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 진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필요

II. 대입제도 개선 방향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 경감
 - 학생·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형체계를 마련하고 전형방법을 간소화
 - 대입전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을 사전에 예고하고 투명하게 공개
- 정부는 대입전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틀을 마련
 - 고교 교육 정상화와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실화 및 신뢰도 제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 원서접수,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과 학부모의 대입전형 편의성 제고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
 - 대학입학 적격자를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선별하고, 유의미한 교육 경쟁으로 전환되도록 대학의 대입전형 역량 강화 유도
- 고교, 학부모,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력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지닌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운영 지원기구”를 구성
 -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 ▶ ‘15~’16학년도 대입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학생·학부모 등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요인은 개선
- ▶ ‘17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개선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

Ⅲ. 대입전형 개선

1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입전형 간소화

< 개 선 방 향 >

- ▶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존중하되, 대입전형의 운영 원칙과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자율적 간소화 유도
 - 모집시기(수시·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 운영
 - 핵심전형 요소 중심으로 마련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전형 운영
 -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를 통한 전형 간소화 유도
- ▶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및 정보 접근 기회 확대

① 수시·정시모집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 (수시 모집)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특기·소질을 정성적으로 평가
 - ('15~'16학년도) 수능 성적(수능 최저학력기준) 반영 완화 유도
 - ※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백분위 등 사용 지양 권장)
 - ※ 대입전형 관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수능 성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선발 지양 유도
 - ('17학년도 이후) 수시모집에서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안 검토
 - 【제1안 : '15·'16학년도 개선안 유지】 수능성적 반영 완화 권장
 - 【제2안 : 수능성적 미반영】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성적을 제공하여 수능성적 반영 배제
- (정시 모집) 수능·학생부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평가

②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및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전형체계와 기본원칙 적용】

○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 마련

- 수험생들이 어떤 요소를 준비하면 어느 전형에 지원·합격할 수 있을지 알기 쉽게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대입전형 체계 표준화
-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대입전형 체계 마련

※ 예체능계열의 경우, 꿈과 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기만으로 선발하는 전형 권장

< 대입전형 체계(안) >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논술 위주	· 논술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 수능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

**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 포함

- 전형체계와 함께 대입전형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이해 도모

< 대입전형 관련 용어 정의 >

용어	정 의	예 시
전형유형	전형 체계 내, 핵심 전형요소 중심의 전형 분류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전형명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대학이 실제로 설계한 전형의 명칭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미래 인재 전형, 과학인재 전형
전형방법	전형에 실제 적용되는 전형요소 활용 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70 + 수능 30 논술 80 + 학생부 20

○ 복잡한 전형내용을 단순화하고, 학생·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운영의 기본 원칙 제시

- 동일한 “전형명” 내에서는 동일한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 다만, 계열별로 학생부, 수능 등의 반영과목 및 영역은 대학 자율

현 행 (예시)	개 선 (예시)
<p>▶미래인재 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계열 : 학생부 30, 수능 60, 면접 10 - 항공계열 : 학생부 40, 수능 50, 서류 10 - 인문계열 : 학생부 50, 수능 50 - 자연계열 : 학생부 50, 수능 50 <p>▶학교생활우수자 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 서류 100 	<p>▶미래인재 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 항공, 인문, 자연계열 공통 : 학생부 70, 수능 30 <p>▶학교생활우수자 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함) 100

- 전형요소 반영비율 등은 실제로 평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

현 행 (예시)	개 선 (예시)
<p>▶(학생부) 반영비율 70</p>	<p>▶(학생부) 반영비율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00점 중 기본점수 300점, 등급간 50점 차 ※ 9등급 300점, 1등급 700점

- 동일한 전형에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하여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 선발 방식 지양

현 행 (예시)	개 선 (예시)
<p>▶(우선선발) 학생부 10, 수능 90</p> <p>▶(일반선발) 학생부 40, 수능 60</p>	<p>▶학생부 40, 수능 60</p>

【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최대 6개 이내로 사용(정원내 기준)

- 수시는 4개로, 정시는 2개로 전형방법 수 축소

※ 예체능계열 및 사범대 모집단위의 경우 최대 전형 방법 수 기준(6개)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 / 학생부 70% + 수능 30% vs 학생부 80% + 수능 20%는 다른 전형방법

< 종전 전형운영 예시 (전형방법 수 : 수시 8개, 정시 5개) >

구분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선발방법	전형요소
수시	논술 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우선(60)	학생부30+논술70
				일반(40)	학생부40+논술60
	학교생활우수자	전모집단위	200	우선(50)	①학생부교과 ②서류
				일반(50)	①학생부교과 ②서류+면접
	수학능력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서류100
	미래형인재	전모집단위	100	단계선발	①서류 ②서류+면접
사회공헌·배려자	전모집단위	100	단계선발	①학생부 ②서류	
예체능우수자	예체능계열	100	일괄합산	분야에 따라 실기·특기	
수시 소계			700		
정시(가)	일반전형	연극(연기)	50	일괄합산	학생부 20+수능20+실기60수능100
		연극(연출)	50	단계선발	①수능 100 ②학생부 20 +수능40+실기40
		전모집단위	100	우선(70) 일반(30)	수능100 학생부30+수능70
정시(나)	학교생활우수자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서류 100
	일반전형	전모집단위	100	일괄합산	수능100
정시(다)	일반전형	경영학부	100	일괄합산	수능100
정시 소계			500		
합계			1,200		



< 개선된 전형운영 예시 (전형방법 수 : 수시 4개, 정시 2개) >

구분	전형유형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	논술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100	학생부 30 + 논술 70
	학생부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일반 200 사회적 배려자 50	학생부(교과)
		전모집단위	일반 200 사회적 배려자 50	학생부(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등**
	실기 위주 전형	예체능계열	100	실기(혹은 특기) 평가 100
수시 소계			700	
정시(가)	실기 위주 전형	예체능계열	100	실기(혹은 특기) 평가 80 + 학생부 20
	수능 위주 전형	전모집단위	400	학생부 30 + 수능 70 또는 수능 100
정시 소계			500	
합계			1,200	

* (예시) 종전에 별도로 운영한 정원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포함하되 일반학생과 모집인원을 구분하고 별도 자격기준 설정

**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③ 수요자 중심의 대입전형 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 **매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정보공개 항목**을 제시하여 대학간 비교가능하고 진학준비에 유용한 정보 제공 유도

<정보공개 항목 예시>

- ▶ 전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 모집단위별 경쟁률, 전형유형별 경쟁률
 - 수시 및 정시 모집 계획 대비 실제 등록 인원 등
- ▶ 전형 준비를 위한 안내 사항
 -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논술 문제, 채점기준 등

-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제시된 정보 항목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토록 권장

④ 대입전형 정보 접근 기회 확대로 수험생 편의성 제고

- 기존의 총괄·취합 형태의 대입전형자료 외에 수험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학 설계 자료***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원하는 대학군·학과별 자료, 학생부·수능·논술 등 전형요소별 자료

- 전형요소를 토대로 대학 및 학과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입정보 시스템 고도화

-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와 상담교사 및 진학부장의 역량 제고*를 통하여 **학교 내 진학지도 활성화**

* 대교협 주관 대입컨설팅 연수, 대교협 대입상담교사와의 교류 활성화 등

2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 선 방 향 >

- ▶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 강화
-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발표 내용 구체화
-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발표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 허용

1] 사전 예고제 강화

- 학생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하여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강화

< 사전 예고제 적용대상 및 발표시기(안) >

구분	대 입 정 책 (정 부)	대입전형기본사항 (대교협)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발표 시기	중 3, 11월말까지 (3년 3개월 전)	고 1, 8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3, 5월말까지 (9개월 전)

※ ()는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사전예고 기간

- 개선된 사전 예고제는 대교협 및 대학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
 - '16학년도 대입전형 예고 시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마련

< 사전 예고제 경과조치(안) >

구 분	'16학년도	'17학년도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	'14. 4 (1년10개월)	'14. 8 (2년 6개월)
대 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14. 7 (1년 7개월)	'15. 4 (1년10개월)

※ ()는 입학년도 3월 1일 기준 사전예고 기간

② 진학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대입전형 발표내용 구체화

-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대교협)에 명확히 제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예시>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 등

-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법령에서 정한 시한까지 대교협 및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표

③ 발표 후 변경 제한으로 대입전형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 대입전형 발표 후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변경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

(대입전형 기본사항) 법령 제·개정으로 기본사항의 주요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완료
- 대입전형 발표 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시 반영

< 개선 방향 >

- ▶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입학전형을 확대하고 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들이 실제로 선발되도록 운영
-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고교 유형, 지역, 소득 계층 학생들이 균형있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학 학생의 다양화 추구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
 - 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학생의 여러 환경과 잠재 능력을 종합 평가
 - ※ 거주 지역(농어촌)·소득 수준(저소득층) 등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재정지원 불이익 조치
- 국립대가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 대학평가시 국공립대에는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 비율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②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입학 학생의 다양성 확대

- 균등한 진학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 유형, 지역, 소득 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
 -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입법 진행상황에 맞추어 “지역인재 선발” 추진
- 이를 위한 대학의 노력과 실제 선발 결과를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 ※ 학생의 지역적, 경제적, 출신 고교유형별 다양성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대학별 입학전형 개선 유도

IV. 전형요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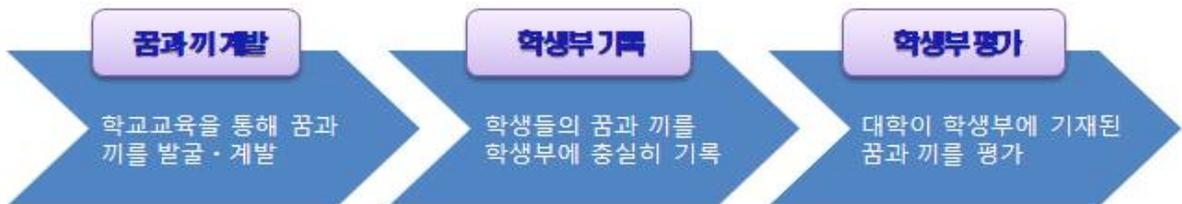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 개선 방향 >

- ▶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꿈과 끼가 평가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전형 역량 제고
- ▶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과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교과 기재내용을 충실화

1]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내실화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를 실질적으로 반영



- 학생부 교과 성적, 교과 발달사항, 비교과 활동(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 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
 - ※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은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교과를 중점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꿈과 끼 평가
 - ※ 수시 모집에서 수능성적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부의 '한국사' 성적 반영 권장('17학년도)
-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외부 실적 등을 요구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 제출은 제한하고, 추가 전형 요소를 최소화하여 준비 부담 완화
 - ※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학생부 기재 내용 확인·보완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교과관련 외부수상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

- 교수, 입학사정관 등 평가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공정한 전형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의 신뢰도 제고
 - 평가인력에 대한 연수·훈련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이해 제고, 평가 전문성 강화
 - 다수 다단계 절차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의 사교육 기관 취업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입학사정관 입·퇴직 현황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현직 입학사정관 윤리 강령 재정비 등
- 대학 스스로 연구를 통해 학생부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간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지원
 - 학생부 위주 전형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바람직한 전형방법을 개발하고 타 대학 컨설팅, 우수사례 확산 등 선도적 역할 부여

②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 반영 유예

- 기 예고된 대로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되,
 -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19학년도까지 유예하고,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대학에 제공

< 학생과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정보 >

제공 성적 정보	학 생 (‘14학년도 고1부터)	대 학 (‘17학년도 대입전형)
성취도(A, B, C, D, E)	○	×
석차 9등급	○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	○

- ※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전형이 적용되는 현 고1 및 고2학생의 경우 학생 및 대학에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됨
- '14~'16년간 고교에서의 성취평가제 운영결과와 정착 정도를 평가한 후, '20학년도 이후의 성취평가 결과(A,B,C,D,E) 대입 반영은 '16년 하반기에 결정

③ 학교생활기록부 교과기록의 신뢰성 확보

- 성취평가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종합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원의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성취기준·수준에 부합하는 평가도구 개발, 공정한 평가 운영, 점수 산출 등을 포괄하는 매뉴얼 개발·보급
 - 성취평가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대상 단기, 심화 및 온라인 연수 강화
 - ※ 3년 계획을 마련하여 학교별·교과별 평가전문가 1명 이상 양성
- 고교의 성취평가제가 공정하고 신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취 평가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 지원 강화
 - 교육부 주관으로 “성취평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교현장의 학생평가를 모니터링하고 교원연수 및 컨설팅 지원
 - ※ 평가 공정성·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 개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교육청에 제공
 - 시·도교육청에 교과별 평가전문가를 중심으로 “성취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성하여 자료개발, 학교 컨설팅, 교사연수 등 지원
 - 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과협의회의 상시 운영을 통해 교원중심의 평가 및 성적관리 전문역량 강화 도모
- 성적 부풀리기 등 고교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통하여 개선하는 등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 ※ 교육청 차원의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되는 고교에는 학교평가 반영 등 불이익 조치

4]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등 서술형 기록 내실화 지원

- 교원 업무부담 경감 및 대학의 학생부 반영 지원을 위해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선하여 기재분량 적정화
 - 학생 관련 서술형 기록의 항목별 입력 글자 수의 범위 설정
 - 학생의 개인별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항목별 '특기사항'에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기재요령 개선 사항>

- ▶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특기 사항') 나열식 기재를 지양하고 개인별 특성이 드러나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재
- ▶ (독서활동상황) 독서 관심 분야 및 읽은 책, 흥미 등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입력

- 학생의 꿈과 끼가 대입전형에서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학생부의 기재내용 충실화
 - '진로희망사항'에 학생들의 진로 선택 동기 등 기재란 신설
 - ※ 학교생활기록 중 진로활동 관련사항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계·활용하도록 하여 진로지도 및 진로분야 학생부 기재 내실화
 - 동아리 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통한 예체능 활동도 학생부에 충실히 기재
- 비교과 기록의 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기재 방식 개선 추진
 - 수상실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교내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도록 양식 개선
- 학생부의 내실있는 기재를 위한 지원 강화
 - ※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 운영, 학생부 기재 우수 예시 자료 제작·보급 등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 개 선 방 향 >

- ▶ 혼선을 유발한 수준별 영어는 '15학년도에 폐지하고, 국어·수학은 교육과정 운영상황과 학생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16학년도까지 유지하되, '17학년도에는 전면 폐지
- ▶ '17학년도 수능체제는 학교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 교육과정 발전방향, 영역간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제시
- ▶ 종전과 같이 수능의 영향력을 완화하고 쉬운 수능 기조 유지

①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 ('15·'16학년도) 영어는 수준별 시험 폐지*, 국어·수학은 유지**
 - *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 ** 이미 고1·2학년은 A/B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수업 중인 상황 고려
- ('17학년도) 수준별 수능 전면 폐지

② 2017학년도 수능 체제 개선 검토

【기본방향】

- 문·이과 교육과정 편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복수안 검토
 -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방향 확정
- 출제 대상범위는 기본·심화 과목을 제외한 “일반”과목으로 한정
-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는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하여 필수과목으로 지정
 - ※ 한국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출제 경향 등을 사전에 안내('14.상반기)

【시험 체제(안)】

제1안 :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을 평가하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
 - 국어·영어영역은 단일 시험으로 통합하되, 수학 영역은 문·이과별로 출제범위(가/나형)를 다르게 하여 출제
 - 탐구영역은 현행과 같이 사회/과학/직업탐구로 구분하여 영역 내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성적은 분리 산출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과 유사한 체제이므로 제도적 일관성 유지 및 혼란 최소화 ▶ 현실적으로 문·이과 계열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안정성 유지 ▶ 학생의 미래 진로에 따라 선택한 계열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대학 진학 후에도 전공이수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 구분없는 본래 교육과정 취지와 배치 ▶ 선택한 문과 또는 이과 계열 중심의 과목 편식 학습으로 융·복합적 인재 양성에 한계 ▶ 이공계 진학 학생의 시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 지속 우려

제2안 : 문·이과 일부 융합안

- 학생의 균형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문·이과별로 교차하여 과목을 선택하는 등 종전의 수능체제 틀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안
 - 국어·영어영역은 공통학업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되, 수학영역의 경우 **공통과목**을 설정하고 나머지 과목(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에서 **1과목** 선택
 - 탐구영역은 학생이 선호하는 **중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고, 기타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
- ※ 예시 : ①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 한국지리, 과학탐구에서 생명과학 I 선택
 ②과학탐구에서 화학 I, 생명과학 I,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 선택
 ③직업탐구에서 공업일반, 기초제도, 사회탐구에서 법과 정치 선택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은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바탕으로 진학하려는 계열이 요구하는 과목(미적분Ⅱ 또는 확률과 통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험부담 경감 ▶ 특정 탐구영역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다른 탐구영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여 융·복합적 학습에 일부 기여 ▶ 실제 교육과정 운영 시 현장의 혼란 완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 취지 미흡 ▶ 대학 이공계열 모집단위에서의 수학 학력저하 비판 가능성 ▶ 중하위권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탐구 2과목 + 과학탐구 1과목으로 응시할 가능성

제3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이 균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문·이과로 구분되어 있는 수능시험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
 -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과목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평가
 - 국어·영어·수학영역은 **공통학업능력** 측정을 위해 출제범위도 각각 동일하게 설정
 - 사회·과학영역은 ‘**사회**’(사회 및 지리교과 내용요소 포함) 및 ‘**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내용요소 포함) 과목 중심으로 평가
- ※ ‘사회’ 과목에는 **역사교과**(동아시아사, 세계사)와 **윤리교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20학년도부터 수능 출제에 반영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이과 구분이 없는 교육과정 취지에 부합 ▶ 융·복합적 인재 양성 차원에서 계열 구분 없이 균형적으로 이수한 내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 ▶ 수능에서 공통학업능력을, 학생부에서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심화 학습한 과목(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물리Ⅱ, 세계사, 경제 등)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어 꿈과 끼를 반영하는 선발에 부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영역에서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과목이 제외됨에 따라 대학 이공계열 모집단위에서의 학력 저하 비판 가능성 ▶ ‘17~’19학년도 수능에 역사 및 윤리 교과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해당 교과 학습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 사회·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 영역별 (예:과학과목)로 공통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요소들을 출제하면 해당 영역의 과목(예: 물리Ⅰ, 화학Ⅰ, 생물Ⅰ, 지구과학Ⅰ)을 일정 정도 학습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가능성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안) >

구 분	현 행	제1안 :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제2안 : 문이과 일부 융합안	제3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취 지	학생 수준별 학업 능력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 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교차하여 과목 선택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 습해야 하는 내용 평가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험부담 완화 A/B형 선택에 따른 혼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능시험의 안정성 유지 문·이과 구분없는 교육과정 취지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상의 문제 최소화 제도개선 취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 구분없이 융복합 인재양성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학부모 부담 가능성
국어	A: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공통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B: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			
수학	A: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가: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공통 (수학 II, 미적분 I) + 선택 1과목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공통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B: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A: 영어, 영어 I	공통	공통	공통
	B: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실용영어 II, 영어 I, 영어 II)	(실용영어 II, 영어 I, 영어 II)	(실용영어 II,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	필 수		
사회 탐구	선택한 영역에서 택2	선택한 영역에서 택2	사탐 택2 + 과탐 택1 또는 과탐 택2 + 사탐 택1 또는 직탐 택2 + 기타 택1	‘(공통)사회’ 과목 + ‘(융합)과학’ 과목
과학 탐구	·사탐: 10과목 중 택2 ·과탐: 8과목 중 택2 ·직탐: 10과목 중 택2	·사탐: 9과목 중 택2 ·과탐: 8과목 중 택2 ·직탐: 10과목 중 택2		
직업 탐구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현행 유지		

③ 수능-EBS 연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

④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은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수능과 미 연계

3

학생과 고교를 배려하는 대학별 고사 운영

< 개선 방향 >

- ▶ 대학의 자율적인 대학별 고사 시행을 존중하되, 가급적 고교교육 활동 기록을 사용하도록 권장
- ▶ 지나친 논술 유형의 다양화 지양 및 논술 문제의 교육과정 내 출제 유도

① 고교와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고사 시행 유도

-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
 - * 공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 “심화과목” 수준에서 출제하는 경우 심화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과 이수한 학생 간 형평성 논란 및 사교육 발생 우려
-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논술 운영이 되도록 유도
 -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 등 공개

② 수험부담을 유발하는 면접 및 적성검사 지양

-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 학생부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등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활용

V. 모집시기 개선

< 개선 방향 >

- ▶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단일화
- ▶ 정시모집 일정 축소를 통해 정시모집 충원이 일찍 종료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순조로운 신학기 준비와 시작을 지원
- ▶ 고교 교육이 고3 2학기말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일을 늦추는 방향으로 일정 조정

① 수시모집 1·2회차 원서접수 기간 통합

- 원서접수 시기 구분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기 통합
 - 다만, 원서접수 기간을 충분히 부여(예 : 10일 중 대학별로 5일 이상) 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구 분	종 전 (2014학년도 기준)	개 선 (예시 : 2015학년도 기준)
원서접수	1) 수시 1회차: 9.4(수)~9.13(금) 중 3일 이상 2) 수시 2회차: 11.11(월)~11.15(금) 중 3일 이상	9.3(수)~9.18(목) 중 5일 이상 ※추석 및 토요일 제외
전형기간	9.4(수)~12.2(월) (90일)	9.3(수)~12.4(목) (93일)
합격자 발표	12.7(토)까지	12. 6(토)까지
합격자 등록	12.9(월)~11(수) (3일)	12. 8(월)~10(수) (3일)
충원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12.16(월)21:00시 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12.15(월)21:00시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12.17(화)까지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12. 16(화)까지

② 정시모집 일정 축소 및 학과 내 분할모집 폐지

- 정시모집의 경우, 군별 전형기간을 축소하여 전체적인 정시모집 일정 축소 추진

- 대입지원에서의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의 학과 내 분할모집 (가나·가다·나다·가나다) 폐지

구 분		종 전 (2014학년도 기준)	개 선 (2015학년도 기준)
원서접수		1) 가, 나, 가나군 : 2013.12.19(목) ~ 23(월) 2)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3.12.20.(금) ~ 24(화)	2014.12.22(월) ~ 12.26(금)(5일) * 온라인 원서접수는 12.25(목)까지
전형 기간	“가” 군	2014.1.2(목) ~ 1.13(월) (12일)	2015.1.2(금) ~ 1.11(일) (10일)
	“나” 군	2014.1.14(화) ~ 1.24(금) (11일)	2015.1.12(월) ~ 1.20(화) (9일)
	“다” 군	2014.1.25.(토) ~ 2.5(수) (12일)	2015.1.21.(수) ~ 1.29(목) (9일)
합격자 발표		2014.2.5(수) 까지	2015.1.29(목) 까지
합격자 등록		2014.2.6.(목) ~ 2.10(월)(5일)	2015.1.30.(금) ~ 2.3(화)(5일)
충원합격자 발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4.2.19.(수) 21:00시 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마감 : 2015.2.11.(수) 21:00시 까지
충원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2014.2.20.(목) 까지	미등록 충원등록 마감 : 2015.2.12.(목) 까지

③ 모집시기별 미등록 충원방법 개선 검토

- (‘17학년도이후) 최종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미등록 충원에 따른 학생·학부모 및 대학의 부담 경감
 -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한번에 결정함으로써 추가합격 발표, 등록, 환불 등 충원 반복 절차문제 해소
 - * (대학) 대학별 입학사정 후 모집단위별 예비합격순위를 작성하여 공통 시스템에 제출
 - * (학생) 선호순위 적시하여 공통시스템에 제출
(합격자 일괄발표 시스템) 학생 선호순위와 대학의 예비합격순위를 조합하여 한번에 합격자 결정
- 수시 및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 단축을 통해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전형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가능 기대

④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시험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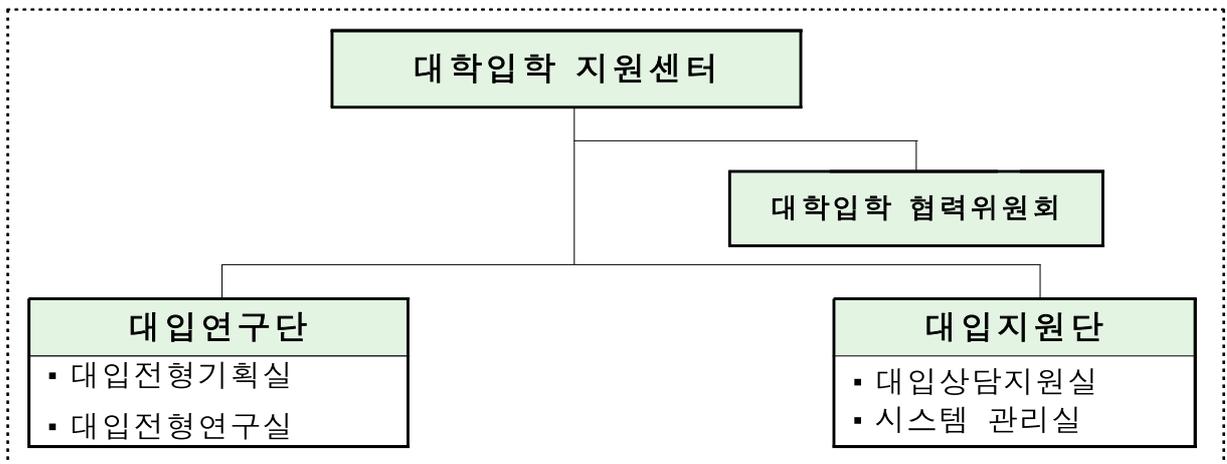
- (‘15·16학년도) 현행보다 1주 늦춰 11월 둘째 주에 시행
- (‘17학년도이후) 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정시모집 일정이 단축될 수 있어 수능을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에 시행할 수 있으며 고교의 학사운영 부담 경감 기대

VI. 대입전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1 대입전형 운영 지원 기구 구성 검토

- 대학입학지원을 총괄하는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 설치 검토
 - 단기적으로 대교협에 설치·운영하고, 적절한 시기에 독립 검토
 - 고교·대학·학부모·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 기구로서 “(가칭)대학입학 협력위원회”를 센터 내에 구성·운영 검토
 -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입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대입전형 관리 도모

<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 구성(안)>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의 역할 예시>

-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및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
- ▶ 학생부 신뢰도 제고, 고교 교육과정 중심 논술운영 유도, 교육격차 완화 등 대입정책 발전방안 연구
- ▶ 대입정보제공 및 대입상담센터 운영
- ▶ “(가칭)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2

[가칭]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절차 간소화

< 개선 방향 >

- ▶ 학생·학부모의 원서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부담 경감
- ▶ 원서접수는 물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절차적 대입 간소화 실현

1] 구축내용

- 원서접수처리 뿐만 아니라 대입정보 제공, 중복 등록자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구축



- “정부 3.0” 취지에 부응하여 대학(대학별 학과·전공 정보), 대교협(진학상담), 시·도교육청(학생부 성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성적), 장학재단(장학금 정보) 등 기관 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학생·학부모·대학의 편의성이 극대화하도록 구축
- 특히, 미등록자 충원절차 반복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불편을 해소하고 대학의 행정력·비용 절감을 위해 최종 합격자 일괄 자동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유사사례 : 영국의 UCAS(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 ❖ 대학지원 준비 단계부터 합격 이후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지원
 - ① 학생은 입학정보를 확인하고 대학·학과를 5개 선택한 후, UCAS에 원서제출
 - ② UCAS는 학생 지원 학과 및 성적 정보를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제공
 - ③ 각 대학은 입학사정 후, 합격자 정보를 UCAS에 제출
 - ④ UCAS는 학생 지원 정보와 대학의 합격자 정보를 토대로 학생에게 합격 통보
 - ⑤ 최종 합격된 학생에게 국가·대학 장학금 등 정보 제공

② 추진방법

-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 내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 조직 설치
- 가능한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계적 시스템 개발 추진
 - (1단계)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을 우선 구축하여 내년 정시모집 (국립대 41개교)부터 적용
 - (2단계) 시·도교육청(학생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접수) 등 기관 간 정보연계 등 2017학년도부터 통합시스템으로 고도화

	1단계		⇒	2단계
구축일정	2013. 8. ~ 2014. 11.			2014. 4. ~ 2015. 12.
적용시기	2014. 12.	2015. 8.		'16. 3.
적용내용	원서접수 일부적용	원서접수 전면적용		종합시스템 전면개통
적용대상	국립대 41개교 (정시모집)	4년제대학 199개교 (수시·정시모집)		4년제대학 199개교 (수시·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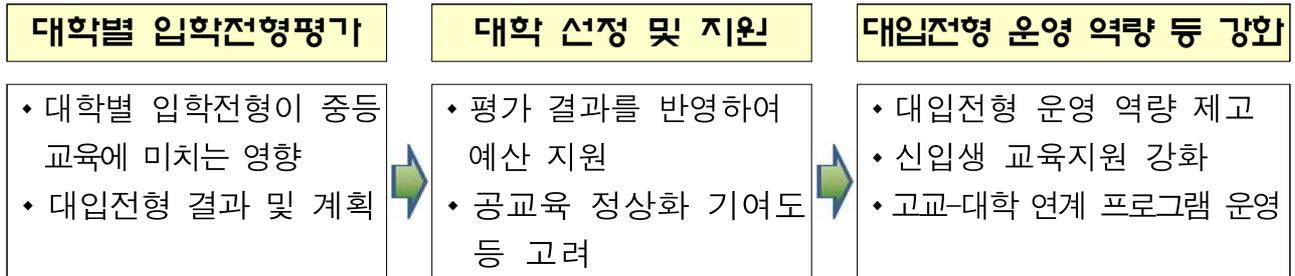
- 시스템 개발·구축과 함께 대학의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중장기적으로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추진
- ※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가칭)대학입학 지원센터” 구성과 함께 병행하여 검토

3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도입

< 개선 방향 >

- ▶ 규제보다는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협력 유도
- ▶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



- (대입전형 평가) 대입전형의 공교육 연계, 전형 간소화 정도 등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평가지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정성·정량적 평가를 병행

< 평가 내용 예시(안) >

- ▶ 긍정지표 : 입학전형 간소화, 학생부 반영 비중, 한국사 반영 여부, 예술·체육 등 인성교육 관련 활동 반영 여부, 꿈과 끼를 갖춘 인재 선발 등 공교육 정상화 기여도
- ▶ 부정지표 : 학교교육에서 준비하기 어렵거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실시 여부 및 정도 등

- (대학 선정 및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매년 선정하여 예산 지원
 - ※ 평가 순위와 함께 해당 대학의 대입 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학 선정
 - ※ 평가결과, 부정적 요인이 매우 큰 경우 동 재정지원 사업은 물론 교육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의 참여 제한 검토
- (대입전형 운영 역량 강화) 대학은 대입전형 운영 역량 및 추수지도, 기초학력 강화 등 신입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 예산 사용

VII. 추진일정

-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 발표 : '13. 8. 27
-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 : '13. 9월 초 ~
 - 전국 단위 공청회(서울, '13. 9. 2)를 시작으로 권역별(대구, 광주, 창원, 청주 등) 공청회 개최 및 관계자 간담회 수시 개최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3. 9월중순
- '17학년도 대입제도(안) 확정 : '13. 10.

대입전형 개선 주요내용 비교

	현 행	'15·'16학년도	'17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 수 과다 · 수시에서도 수능성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 전형방법 적용 ·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안)'15·'16학년도 개선안 유지 · (2안) 수능성적 미반영
전형 예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교협) 1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3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과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교협) 2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하지 않은 발표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내용 구체화 · 발표 후 변경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모집 중심 반영 · 석차 9등급(상대평가) · 서술형(비교과) 기록 부풀리기 등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및 정시에서 대학의 학생부 반영 내실화 · 석차 9등급(상대평가) ·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성취평가 결과(A, B, C, D, 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 (2020학년도 이후 대입반영은 '16.하반기에 결정) · 학생부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수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 (탐구) 영역 내 2과목 선택 · (한국사) 선택과목 · EBS 70% 연계 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 (국어·수학)'16학년도까지 수준별 수능 유지 · 좌 동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3가지 안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 - 문·이과 일부 융합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 (탐구) 최대 2~3과목 수준 · (한국사) 필수과목화 · 좌 동
대학별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출제 · 정보부재로 논술준비 어려움 · 면접 및 적성검사로 수험 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1,2회차 원서 접수 · 정시모집 가, 나, 다군별 분할모집 · 수능 11월 첫째 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원서접수 기간 통합 ·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 수능 11월 둘째 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수능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 실시 검토
대입전형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중심의 대입전형 관리·운영 ·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 미흡 ·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고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운영 지원 기구 구성 검토 ·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도입 ·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2009 교육과정 총론(보통교과)

교과영역	교과(군)	과 목		
		기본	일반	심화
기초	국어		국어 I, 국어 II,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수학	기초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고급 수학 I 고급 수학 II
	영어	기초 영어	실용 영어 I, 실용 영어 II, 실용 영어 회화,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I, 영어 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 영어, 심화 영어 회화 I, 심화 영어 회화 II, 심화 영어 독해 I, 심화 영어 독해 II, 심화 영어 작문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 지리, 세계 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 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학,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 과학 I, 생명 과학 II, 지구 과학 I, 지구 과학 II	고급 물리, 물리 실험, 고급 화학, 화학 실험, 고급 생명 과학, 생명 과학 실험, 고급 지구 과학, 지구 과학 실험, 환경 과학, 과학사 및 과학 철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 ①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각 과목별로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한 학기에 이수하도록 한다. 단,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교양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경우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과목의 기본 단위 수는 5단위이며, 과목별로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③ 기본 과목과 심화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 ④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중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한국사’는 반드시 이수한다.
- ⑤ 예술계열 고등학교 이외의 고등학교에서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시안 마련 경과

- 대통령 국정과제, 2013 업무보고 : '13.3.28

< 주 요 내 용 >

- ▶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로 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요소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금년 8월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13. 11월 발표)에는 핵심 전형요소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입학전형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임
- '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교협에서 7월에 발표하는 수시모집 주요 사항과 11월에 발표하는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단순화된 전형명칭을 부제로 표기하도록 할 계획임

- 정책연구과제 개시 : '13.4~

- 정책연구진 협의회 13회 개최 : 4.24, 4.30, 5.2, 5.10~11, 5.20, 5.28, 5.31, 6.3, 6.8, 6.10, 6.17, 6.19, 6.29~7.1

-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 '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 관련 전문가 및 전국대학입학 관리협의회 의견청취 : 4.4, 4.9
- 주요대학 총장, 입학처장, 교육전문가, 대교협 관계자 의견수렴 : 8.9~8.26

- 대입전형 발전방안 자문위원회 회의 2회 개최 : 6.14, 8.20

- 대입전형발전 방안 마련 연구진 등 정책 토론회 10회 개최 : 7.4, 7.11, 7.17, 7.18, 7.21, 7.25, 7.27, 8.1, 8.14, 8.18

[붙임4]

영국의 원서접수기관(UCAS) 운영 현황

□ UCAS 개요

- 명칭 : 대학입학관리청(Universities and Colleges Admissions Service : UCAS)
- 기능 : 영국의 모든 대학신입생 선발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처리
- 설립시기 : 1993년
- 직원수 : 총 318명(이사회는 22명)
- 회원수 : 304개
- 성격 : 비영리 단체

□ 운영관련 주요 현황

- 한해 지원자 처리 수 : 60만여명
- 대학 학사과정 수 : 5만 여개
- 지원비용 : 한 과정 지원 11 파운드, 2~5개 과정 지원 21파운드
- 대입지원서 표준화 : 모든 대학이 “UCAS 공통지원서” 사용
- 학생은 지원서를 한번 작성하여 최대 5번 지원 가능
- 2009년부터 온라인으로 지원서 제출

□ 주요 기능 : 대학 준비 단계부터 입학 이후까지 서비스

<진로·진학 상담 지원>

- 학생들이 적합한 전공분야를 찾도록 가이드
- UCAS Media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

<대입관련 업무 지원>

- 학생이 대학 교육과정 선택시 정보에 입각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공통입시 관리기관으로서 전국대학의 지원서와 합격여부 통지서 관리
- 지원서 작성시 학생, 학부모 및 진학지도 교사들을 지도

<대학 입학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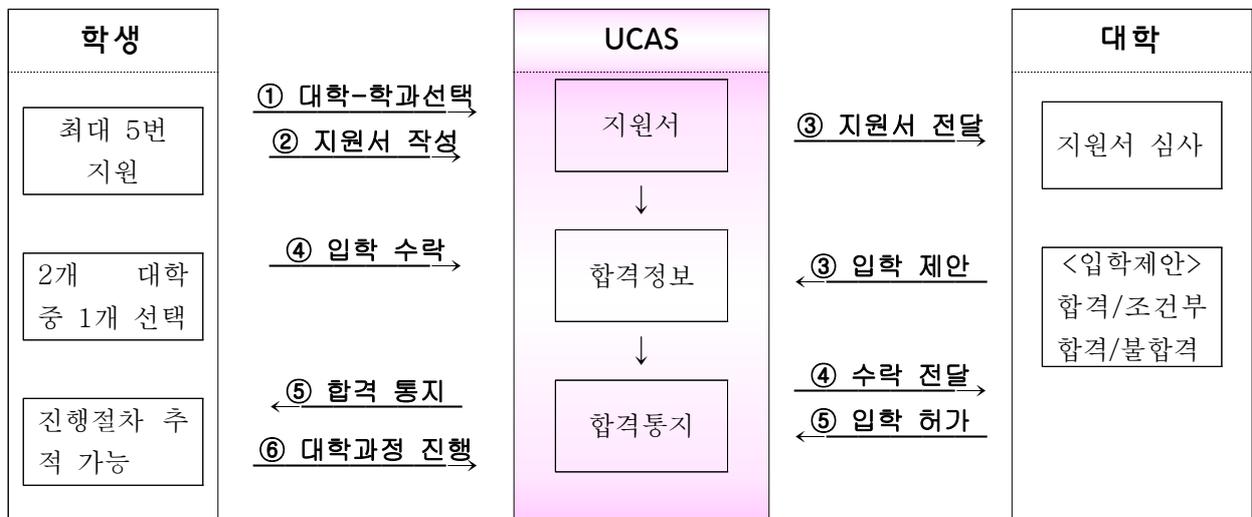
- 대학입학 후 학비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와 정부 보조금 신청에 대한 정보 제공

<대학 미진학 학생 지원>

- 대학입학 대신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구직을 위한 방법안내
- 진학을 연기하는 디퍼링 제도(Deferring system) 이용 안내

□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과정선택(Choosing Courses) ■ 2단계: 지원(Applying) ■ 3단계: 입학 허가(Off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결과(Results) ■ 5단계: 다음단계(Next Steps) ■ 6단계: 대학과정 진행
--	---



- 1단계 : 과정선택(Choosing Courses)
 - 입학 프로파일(학과 과정, 입학요건 등) 검색 후 대학 및 학과 선택(최대 5개)
- 2단계 : 지원(Applying)
 - 자기소개서와 자격정보, 추천서 등 지원서 작성
- 3단계 : 입학 허가(Offers)
 - UCAS가 지원서를 대학에 전달하면 대학은 심사 후 수험생에게 입학제안(합격/조건부 합격/불합격) 안내

- 4단계 : 결과(Results)
 - 입학 제안을 지원자가 수락하면, UCAS는 해당 대학으로 안내
- 5단계 : 다음단계(Next Steps)
 - 대학이 입학을 허가하면 UCAS는 지원자에게 합격통지 보냄
 - ※ Clearing 제도 운영 : 모두 불합격한 학생 대상 미달 학과에 한해 추가모집 실시
- 6단계 : 대학과정 진행(Starting University or College)
 - 수업료, 생활비 등 재정관련 상담 및 여행, 장비 등 대학에 입학하기 전 대학 생활에 필요한 내용 조언

□ UCAS 공통지원서 주요 항목

- **개인정보 입력(Personal Details)**: 개인정보(Personal)(성별, 이름, 주소 등), 개인 참고번호(Reference Numbers), 여권정보(Passport Details), 학비 지불방법(Student Support), 연락처(Mailings from UCAS), 추천인 이름, 추천인과의 관계 입력(Nominated Access), 범죄경력(Criminal Convictions), 장애 여부(Disability/Special Needs)
- **학교 및 학과(과정) 선택(Choices)** : 대학 코드(Institution Code), 학과 코드(Course Code), 캠퍼스 코드(Campus Code), 어느 학년도에 입학할지 선택(Start Date), 집에서 통학여부(Living at home while studying?), 입학시기(Point of Entry)
- **교육배경(Education)** : 학교/기관 이름(School/College/Centre Name), 기관 번호(Exam Centre Number), 시작시기(When did you star?), 마치는 시기(And finish?), 출석(Attendance) 등
- **취업내용(Employment)** : 고용주 이름(Employer Name), 고용주 주소(Employer Address), 일에 대한 기술(Job Description),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When did you start?), 언제 일을 그만 두었는지(When did you finish?), 고용형태(Type of Work)
-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 최대 4,000자까지 작성
- **추천서(Reference)** : 추천인 정보(Referee Details), 예상 성적(Predicted Grades), 인터뷰 관련(Date when applicant is unavailable for interview), 추천서(Reference)
- **원서비용(Pay and Send)** : 한 과정을 지원 시 £11이며, 2개 이상 지원 시 £21임